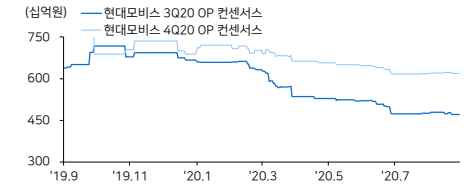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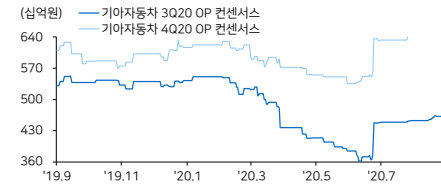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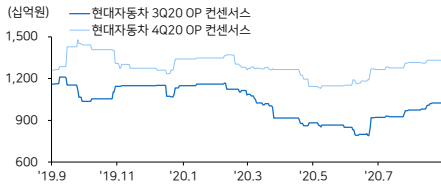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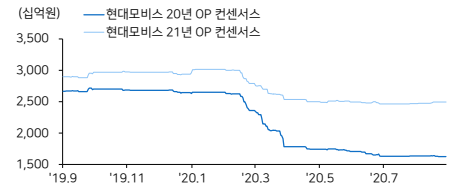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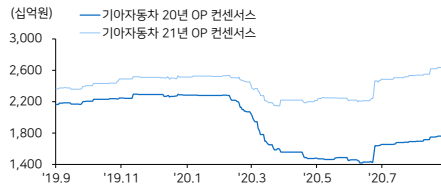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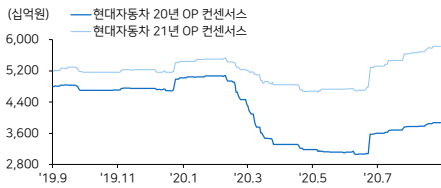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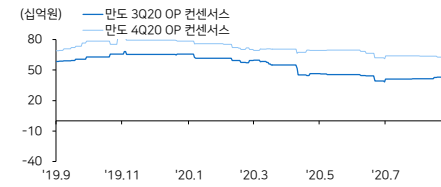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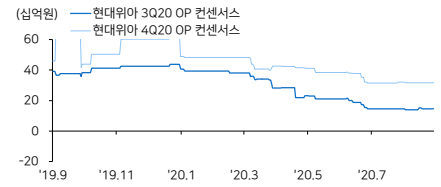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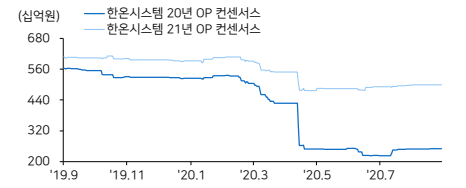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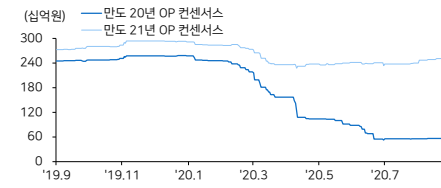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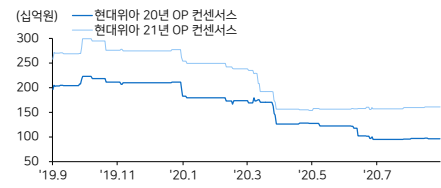
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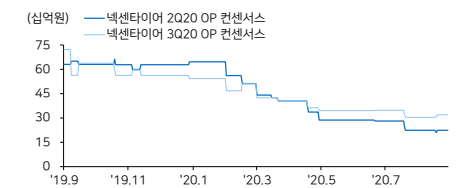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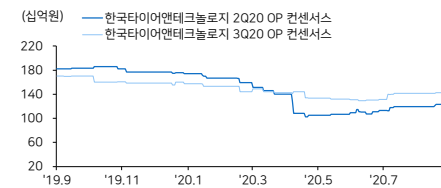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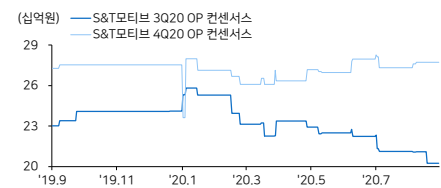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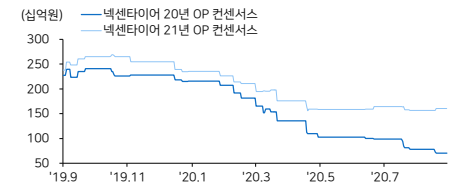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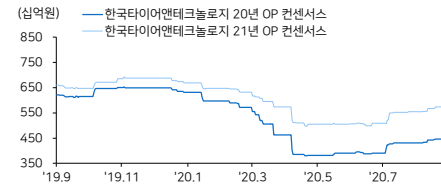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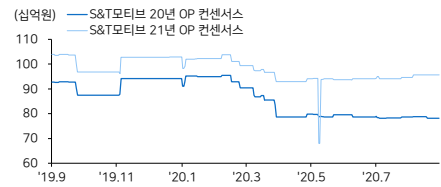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현대차, 베이징서 中 겨냥 이반페 · 투싼, 초고속성 전기차 RM20e 공개 (조선비즈)

현대자동차가 26일 중국 베이징 베이징국제전시장에서 개막한 베이징 국제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이반페와 투싼을 공개하는 등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중국 시장에 판매를 예정. <https://bit.ly/3kTqnW6>

기아차, 신형 카니발 중국 첫공개...판매는 내년부터 (이데일리)

기아차는 중국 베이징국제전시장(CEC)에서 열린 '2020 제16회 베이징 국제 모터쇼'에서 신형 카니발을 중국 시장에 처음 공개. 내년 하반기부터 중국 시장에 판매를 예정. <https://bit.ly/3czMy0e>

현대차, '뉴브루크링 24시 내구레이스' 참가... N 라인업 총출동 (중소기업뉴스)

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N의 3개 차종 전 라인업이 가혹한 주행 환경으로 유명한 '2020 뉴브루크링 24시 내구레이스(ADAC TOTAL 24h Race)'에서 레이스를 통해 성능 입증. <https://bit.ly/3380dcb>

"中 · 인도 등 신흥국 차량 급증, 석유 수요 2030년대가 정점" (조선일보)

'미인스 유가' 상황이 지나갔지만, 여전히 석유 수요와 국제 유가는 회복 중이다.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후 에너지 지형도는 어떻게 바뀔까. Mint가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HS마킷의 대니얼 예긴(73) 부회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함. <https://bit.ly/3kTpk8E>

현대차 11년만에 임금 동결... 노조 52.8% 찬성 (뉴시스)

현대자동차 노사가 11년 만에 기본급(임금)을 동결하며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. 현대차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 52.8%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. <https://bit.ly/368ubYR>

현대 · 기아차, 클라우드 설계 · 개발 신인 · 경력사원 뽑는다 (연합뉴스)

현대 · 기아차가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선발에 나섰다. 현대 · 기아차는 이번 채용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자는 취지. <https://bit.ly/2HCT4Zh>

테슬라는 '3년내 반값' 선언...국산 전기차는 4~5년 걸릴 듯 (연합뉴스)

테슬라가 3년 안에 가격을 2만5천달러(약 2천900만원)로 낮춘 '반값 전기차'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, 국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가격 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. <https://bit.ly/30gpGie>

2차대 니콜라-테슬라 트랙 디자인 소송...주인은 제3자? (아시아경제)

니콜라 원' 디자인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. 실제 없는 기술로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전기트럭 기업 니콜라가 테슬라와의 20억달러(한화 약 2조3500억원) 플래그십 트랙 니콜라 원의 디자인 저작권 소송에서도 수세에 몰림. <https://bit.ly/3mTgQ3g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